

Annotated Bibliography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85~1986

저술소개, 1985~1986 년

편집자주 :본 호에 실린 저술소개는 1985년 7월~1986년 6월 사이에 발간된 전국 각 대학교 및 대학, 대학교부설 연구소, 기타 사회과학학회 및 민간연구소의 논문집중에서 한국의 인구 및 발전문제에 관계되는 논문만을 발췌 수록한 것임.

Editor's note : This bibliography lists articles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 which appeared during July 1985~June 1986 in various journals published by universities,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1. Population Growth and Policy

人口成長과 人口政策

1653. 李光粲, “人口變動에 따른 社會保障”(국문), 韓國人口學會誌 第8卷 第一號, 韓國人口學會, 1985. 9, pp. 1~19.

Lee Kwang-Chan, “Demographic Changes and Social Security in Korea”(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8,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5. 9, pp. 1~19.

社會保障은 福祉國家를 이루하는 데 있어서 가장 根幹이 되는 制度的 裝置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全體人口는 이런 社會保障擴充의 主體이며 동시에 客體라 할 수 있다. 本 논문에서는 諸般 人口學의 變化가 社會保障制度발전과相互間に 直·間接의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全體人口의 年齡계층 구성의 關聯意味를 概觀한 後에 우리 나라 人口변동과 社會保障과의 關聯性에 對해 論한 바 社會보장의 지출비용과 재정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人口學의 变動의 영향은 매우 深遠적이고 장기적이며 또한 全民族國家單位의 連帶책 임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속히 統合의 国民보험체제로 전환, 合理의 人體制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1654. 朴來榮, “長期人口成長과 勞動力 需給展望”(국문), 韓國人口學會誌 第8卷 第1號, 韓國인구학회, 1985, 9, pp. 47~65.

Park Rae-Young, “Impact of Population Growth on Labor Force and Employment in Korea”(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tion of Korea Vol. 8,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5. 9, pp. 47~65.

靜態的으로 보면 한 時點의 人口의 규모와 구조가 그 時點의 勞動力 需給面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人口와 노동력需給間의 動態의인 關係는 상당한 時差를 두고 이루어진다. 本考에서는 長期의인 人口成長이 勞動力의 수요와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표본으로는 해방以後 80年代까지의 統計를 사용하고 있다. 結論으로 勞動力의 供給部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長期人口成長과 勞動力의 需要部門에 지배적인 작용을 하는 經濟發展動向을 연관시켜 觀察할 때 우리 나라의 노동력 需給事情은 長期의으로 供給과잉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런 경향은 2000年까지는 물론 그 以後에도 지속될 것인바 이에 對한 對應姿勢로서 여러 가지 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1655. 高甲錫, “人口變動推移와 展望”(국문 및 영문요약), 韓國人口학회지 第8卷 第1號, 韓國인구학회, 1985. 9, pp. 87~117.

Koh Kap-Suk, “Trend of Population Change and Future Population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8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5. 9, pp. 87~117.

本考의 목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中心이 되어 “西紀2000年代를 向한 장기 국가발전구상”에 참여한 바 있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KIPH)의 人口부문 작업보고서에 반영된 우리 나라의 人口 미

래상을 소개함과 동시에 작업보고서에 미처 이론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을 부연함으로써 人口전망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本考는 KIPH의 人口전망을 제시하기에 앞서 1960~1980년의 人口推移를 개략적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음과 같은 기타 전문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人口전망을 간단하게 비교하고 있다. 1) Smith推計 2) Frejka推計 3) EPB의 人口 전망 4) UN推計 5) 李時伯推計.

1656. 卞啓榮, “센서스자료를 이용한 出生率의 推定: 1970~1980 「프레스톤」方法을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第5卷 第2號,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2, pp. 3~18.

Byun Yong-Chan, “Estimation of Birth Rates for Korea During 1970~1980 through Preston's Techniqu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5 No. 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5. 12, pp. 3~18.

人口동태申告率이 높지 않은 경우의 出生率의 算出은 센서스人口자료나 조사자료로부터 間接的으로 推定하는 여러 人口學의 技法이 사용되는데 本考는 그 中 安定人口의一般的인 이론에 기초한 「프레스톤」方法을 사용하여 우리 나라 1970년대 出生率을 추정 비교하는데 目的이 있다. 한편 本分析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실시한 1970년, 75년 및 1980년도 人口 및 住宅센서스보고서를 이용하였으며, 우리 나라 死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同기관에서 발행한 1978년~79년 한국인의 生命表를 자료로 하고 있다.

1657. 朴蓮雨, 孔世權, “反復 人工임신중절의 变動추세에 관한 고찰”(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第5卷 第2號,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2, pp. 101~114.

Park Yeon-Woo, Kong Sae-Kwon, “A Review on Repeat Induced Abortions in Korea: 1974~1982”(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5 No. 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5. 12, pp. 101~114.

本考는 1971년부터 1982년사이에 실시된 5개의 全國실태조사 中 人工임신중절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反復 人工임신중절을 경험한 부인의 社會·人口學적 特성을 年度別로 비교하고 反復 人工임신중절이 母性의 건강과 이후의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문제점과 관련된 간접적인 要因을 推論하고 이에 다음과 같은 提案을 하고 있다. 1) 반복 人工임신중절율이 높은 30代 후반 以後의 연령층 부인과 子女數가 많은 부인들

을 위한 철저한 피임 보급대책의 마련 2) 해당 婦人들에게, 母性건강 측면을 고려하여 피임을 수용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보건교육 및 젊은 연령층에 對한 性교육의 보급

1658. 梁在謨, “한국에서의 出產力 補償 및 規制 제도”(국문 및 영문), 人口문제논집 26호, 인구문제연구소, 1985. 12, pp. 48~57,

Yang Jae-Mo, “Fertility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in Korea,”(in Korean and English),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6, 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Seoul, Korea, 1985. 12, pp. 48~57.

한국에서 개발해 온 家族계획보상 및 규제제도들은 가족계획실천을 장려하고, 少數子女를 지향하는 社會규범 定立을 촉진시키고, 企業體들로 하여금 從業員의 가족계획을 위하여 보다 많은 投資와 經費支出을 장려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男女차별을 없애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規定하면서 현재 제정 公布되어 실시中에 있는 보상 및 規制제도를 年度別로 소개하고 그 效果에 對해 言及하고 있는 게 本考의 내용이다.

1659. 尹鍾周, “老年化 社會에 대한 社會人口學의 展望”(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문제논집 26호, 인구문제연구소, 1985. 12, pp. 58~75.

Yoon Jong-Joo, “Socio-cultural and Demographic Perspectives on Aging Socie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6, 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Seoul, Korea, 1985. 12, pp. 58~75.

1) 老年人口의 증가 2) 核가족화 3) 이른 停年期로 인한 긴 老後生活 4) 老人부양에 관한 전통적 가치 및 규범의 쇠퇴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오늘날 우리 나라의 初期의 老年化 社會에 對한 社會人口學의 고찰과 老人문제의 제기와 그 對策에 對해 論하고 있다.

1660. 趙南勳, 李任田, “도시저소득층 가족계획 실태分析 大田, 大邱地域을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5권 제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7, pp. 113~149.

Cho Nam-Hoon, Lee Im-Jun, “Analysis of Family Planning in Urban Low-Income Brackets-Based on Daejeon and Deagu Citi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5, No. 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5. 7, pp. 113~149.

1960대 以後의 農촌人口의 都市轉入으로 인하여 形成된 都市영세地域住民은 이들 特유의 生活

要件으로不安定한生活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出產率은 상대적으로 높게되고 피임 실천율은低調하기 때문에 종래 농촌지역을 center으로 하면 가족계획사업은都市저소득층에의擴散이 요청되는 바本考에서는大田·大邱지역을 중심으로 한 1)都市영세민의社會·經濟 및人口學的特性, 2)家族계획사업에 대한 노출程度, 3)子女 대한 가치관, 4) 피임 실태에對한內容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661. 李憲琦, “人口變動과 福祉의 課題”(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5권 제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7, pp. 3~21.

Lee Hun-Ki, “Population Changes and Social Welfare Task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5 No. 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5. 7, pp. 3~21.

본 논문은 사회복지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인구변화는 복지수요와 직접관련된다는 점에서 인구변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적 과제의 개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균대화 과정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구변동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 측면에서 복지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복지적 개념을 사회적 불균형요소의 완화 내지 보완 또는 조정역할로서의 의미로 보고, 사회구조상의 내부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와 관련된 인구변동이나 사회개발 그리고 생활환경등의 복합적인 측면에서 복지적 과제 실현에 접근하고 있다.

1662. 孔世卷, 曹愛姐, “出產力低下에 따른女性의 家族生活週期 考察”(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5권 제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7, pp. 22~45.

Kong Sae-Kwon, Cho Ae-Jeo, “Fertility Decline and Family Life Cycle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5 No. 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5. 7, pp. 22~45.

본 논문은 생활주기 그 자체의 구분이나 변화에 따른 관심보다는 이 생활주기가 가족이라는 태두리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또 여성의 역할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의 출산력 저하에 따른 가족주기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을 개관함으로써 앞으로 가족계획사업이 피임중심만이 아닌 가족복지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기초를 마련코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663. 孟光鎬, 金淑子, 孔世權, “週期法 使用婦人們의 個人 및 出產關聯 特性에 對한 比較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론집 제5권 제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7, pp. 46~62.

Meng Kwang-Ho, Kim Sook-Ja and Kong Sae-Kw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ected Personal and Reproductive Characteristics of Rhythm Users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5 No. 1, Korean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5. 7, pp. 46~62.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주기법 사용자들에 대한 몇 가지 특성을 다른 피임방법 사용자들의 특성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이 일에 대한 연구와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필자들은 효과적인 가족계획사업 개발을 위해서 주기법을 사용하는 주부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1664. 鄭熙洙, “長期人口成長에 따른 住宅 및 居환경”(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8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1985. 9, pp. 66~86.

Chung Hee-Soo, “Population Growth and Housing”(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8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5. 9, pp. 66~86.

本稿은 우리 나라 장기人口증가가 住宅 및 住居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예측하며, 바람직한 주거수준 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모색하는데目的이 있다. 내용은 우리 나라 장기人口증가추세를 검토하고, 현재까지의 우리 나라 주택 발전의 추세 및 문제점을 제기한 후에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인구증가가 주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住居수준에 도달하여면 어떠한 대책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665. 李興卓, “Malthus와 그의 人口論：歷史的 재조명”(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5. 12, pp. 30~45

Lee Hung-Tak, “Malthus and his Population Theory: A Re-appraisal”(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8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5. 12, pp. 30~45.

本稿은 人口學을 歷史的인 맥락에서 조명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멀더스의 생애와 그의 人口론

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론의 토대를 여타 社會 경제학자들의 理論과 비교 분석하는게 그 目的이다. 제Ⅱ장에서는 인구증가의 억제를 위한 자원 개발의 제한을 주장하는 프랑스의 경제적 멜더스 주의자와, 제Ⅲ장에서는 Malthus의 인구론을 순수히 生物學的 決定論에 바탕을 둔 착오적인 이론이라고 비판하는 Marx와 비교분석하고 제Ⅳ장에서는 Malthus를 경제학이론의 정립에 큰 공헌을 한 경제학자라고 찬양한 Keynes의 이론을 分析하고 있다.

1666. 安啓春, “家族계획에 있어서의 放任집단에 관한 연구”(국문), 인구문제논집 제26호, 인구문제연구소, 1985. 12, pp. 26~47.

An Gey-Chun, “A Research of the Unenlightened Group in the Family Planning”(in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6, 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Seoul, Korea, 1985. 12, pp. 26~47.

本 연구는 가족계획에 있어서 放任집단의 여러 가지 특성을 밝히는 데 이 目적이 있다. 이러한 일반특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放任집단과 실천자 집단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세부목표로는 다음과 같다. 1) 두 집단의 배경적 특성 2) 그들의 가족계획 및 피임 Service에 관한 지식수준 3) 피임에 관한 그들의 태도 및 피임을 실천할 동기 측정 4) 가족계획에 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그들의 知覺상태를 측정 5) 피임실천에 대한 과거의 경험 6) 그들의 地域社會에서의 가족계획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가능성 7) 위에 열거한 변수들이 가족계획 실천여부에 미치는 영향 8) 放任집단이 앞으로 가족계획에 관하여 어떤 行動意志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代案이 무엇인가 등을 밝히고 있다.

1667. 吳成東, “人口변동의 경제적 효과”(국문), 경영연구, 조선대학교 경영연구소 1985, pp. 21~36

Oh, Sung-Dong, “The Economic Effect of Population Change”(in Korean), *Management Research*,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Chosun University, Kwangju, Korea, 1985, pp. 21~36.

本稿은 경제성장과 人口와의 관계를 「人口에 대한 경제의 작용」과 「경제에 대한 人口의 作用」으로 나누어서 學說史의 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아울러 人口변동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효과中에서 자본수요와 人口변동과의 관계는 주로 케인즈와 한센의 이론을 中心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人口성장율과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롯드의 성장이론의 모형을 토대로 分析하고 있다.

2. Migration and Urbanization 人口移動과 都市化

1668. 李殷高, “한국 痘疫狀況의 变遷 :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의 새로운 과제”(영문),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회보 제14권,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85. 12, pp. 1~14.

Lee Eun-Sul, “Epidemiologic Transition in Korea: A New Perspective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in English), *Bulletin Vol. 14,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1~14.

This paper reviews the progress and prospects for mortality reduction in Korea, drawing upon scanty data available in the literature. Data seem to suggest that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in Korea is slowing, male mortality patterns at older ages are evolving unexpectedly, and infant and child mortality is relatively high. These trends are examined in the framework of the epidemiologic transition theory. Implications of these trends constitute a principal basis for concern about population and developmental issues in Korea. Any continuing progress against mortality would require major efforts in several areas: further investigation of mortality trends and differentials, disease patterns, and health behavior; reexamination of the conventional health care strategies and public health measures; and analyses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relevant to health conditions.

1669. 尹鍾周, “우리 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小考”(국문), 한국인구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5. 12, pp. 1~10.

Yoon Jong-Joo, “A Study on Korean Population in Ancient Era”(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8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5. 12, pp. 1~10.

이 논문의 목적은 7세기 이전 당시의 우리 나라 人口를 戶口에 관한史料를 통해서 推定하는 것이다. 논문의 전개는 국내史料에 기재되어 있는 戶를 口로 看做하고, 新羅의 京主戶數를 전국호수로 가정한 다음 인구 통계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당시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서 위의 가정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보다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①이 시기의 인구-동태적 분석(특히 사

망과 인구이동에 관한 고찰)과 ②당시의 사회·경제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1670. 李時伯, “南北韓人口의 長期展望과 人口學의 비교분석”(국문), 한국인구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5. 12, pp. 11~29.

Lee Sea-Baick, “Population Growth and Its Perspectives of South and North Korea”(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8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5. 12, pp. 11~29.

본 연구는 남북한 인구의 現況을 비교·검토하며, 장기인구성장을 추계하여 미래의 한국인구를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1945년부터 1980년까지 남북한 인구의 속성을 비교·분석하며, 둘째, 파악된 북한인구의 인구학적 속성에 따라 장기인구성장을 전망하며, 세째, 남북한인구의 성장전망을 기초로하여 미래의 한국인구를 분석한다. 필자는 남북한의 공식적, 비공식적 통계자료를 통하여 시계열적 상호비교를 한 바, 남북한의 인구비와 인구증가율, 인구규모, 인구구조를 분석하고 장기적 전망으로 볼 때 남북한인구의 규모는 모두 조밀하므로 인구 성장속도를 둔화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며 그에 대한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公開가 필요하다고 본다.

1671. 崔仁鉉, 卞榕榮, “最近의 死亡 pattern에 관한 고찰”(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5. 12, pp. 46~47.

Choe Ehn-Hyun, Byun Yong-Chan, “Recent Pattern of Mortality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8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5. 12, pp. 46~67.

이 글은 최근 우리 나라 人口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개관해보고 사망율의 동향과 우리나라 人口의 性 및 연령별로 사망패턴을 파악하고 사망원인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사용된 분석자료는 경제기획원 통계조사국에서 발간된 한국인의 生命表(1978~1979)이며 이것을 Coale과 Demeny의 지역모델 가운데 West pattern과 최근 U.N.에서 개발한 開途國을 위한 생명표中 東北亞 패턴을 이용하여 상호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평균수명에 있어서 남·녀간의 격차의 심화와 사망패턴의 유형 및 특징적인 死因構造를 밝히고 있다.

1672. 高甲錫, “最近의 避姪實踐水準과 出產力推

移에 관한 고찰”(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5. 12, pp. 79~92.

Koh Kap-Suk, “A Review of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Fertility and Contraceptive Prevalence in Korea: Some Implication for Policy Suggestio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8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5. 12, pp. 79~92.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글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婦人の 避姪實踐水準樣相의 변천과 그에 따른 출산력 변천의 상관성을 시계열적으로 고찰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人口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필자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기구, 조직, 근거법(예컨대 母子保健法)을 보완하는 方向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673. 具滋容, “開發途上國 인구정책의 과정과 要因에 관한 이론적 논의”(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5. 12, pp. 68~78.

Koo Ja-Yong, “A Theoretical Study of the Process and Determinants of Population Policy in a Developing Countr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8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5. 12, pp. 68~78.

이 연구의 의도는 정책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인구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과 요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 분석총점은 정책결정요인에 두어지고 있으므로 (1) 정책결정자의 인지태도 (2) 정부의 구조와 역량 (3) 대중의 출산행태 (4) 외국의 원조 등이 주요 문제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674. 崔淳, “韓國의 人口와 人口變動一변동유형과 현재의 Status를 中心으로”(국문), 한국사회학회 第19輯 겨울 1985, 한국사회학회, pp. 3~35.

Choi Soon, “Population and population Change in Korea: Current Status and Its Changing Patterns”(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19, Winter 1985.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pp. 3~35.

위의 논문은 해방후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人

口와 人口의 변동 추세를 개관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人口學의 상황과 人口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초점을 두는 문제영역은 우리 나라 人口의 성장과 都-農間 人口분포의 변동, 그리고 이와같은 變動을 일으키는 요소로서出生, 死亡 및 人口移動變化, 그 결과로서 人口구성이다. 우리 나라는 해방이후 40년간 급속한 人口변동을 하였는데, 그 특징은 2,400만이 증가된 人口성장과 최근의 人口성장율의 급속한 둔화, 그리고 급속한 都市人口의 성장과 생산적 인구구조로의 변화를 들고 있다. 필자는 이와같은 人口변동을 사회경제적 변동과 상호관련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675. 魯公均, 趙南勳, “家計消費·貯蓄 및 勤勞·餘暇行態와 出產率間의 因果關係 分析”(국문 및 영문요약), 韓國人口學會誌 제8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5. 12, pp. 93~99.

Ro Kong-Kyun, Cho Nam-Hoon, “Family Consumption-Saving and Work-Leisure Behavior as the Correlate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8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5. 12, pp. 93~99.

본 연구의 의도는 人口증가를 결정하는 生산율을 설명하기 위해 “자녀에 對한 價值”개념을 도입하고 가계의 소비-저축 및 근로-여가행태와 관련하여 자녀의 價值形成을 분석하고 이에따라 출산율결정요인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자녀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자녀양육비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 자녀양육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정책제안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확대 및 연금제도의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676. 全泰允, 朴在榮, “韓國人의 嬰兒死亡率과 이의 生物學的, 社會經濟學的 變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국문), 인구문제연구 제2집, 東亞大學校 人口문제연구소, 1985. 12, pp. 55~86.

Jeon Tae-Yoon, Park Jae-Young,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fant Mortality Rate in Korea and its Biological and Socio-economical Variables”(in Korean), *Studies in Population Problems* Vol. 2, Population Research Center,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1985. 12, pp. 55~86.

우리나라는 지난 20년동안 영아死亡力이 괄목할만큼 底下되었는 데 이는 後期新生兒死亡率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된 것이라 한다. 本研究에서

는 영아死亡率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中 터울(child spacing)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經濟·社會的 그리고 生物學的 변화가 영아死亡力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 정한 모든 변수들간에는 상호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을 分離시켜 寄與度를 측정하는 한편, 相關變數에 대해서는 동시에 統制할 수 있도록 二項重多回歸分析法(The binary multiple regress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1677. 신의향, 전광희, “조직체내에서의 경력이동에 관한 코호트인구학적 분석”(영문),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회보 제14권,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85. 12, pp. 15~27.

Shin Eui-Hang and Jun Kwang-Hee, “A Cohort Demographic Model of Career Mobility in Organizations”(in English), *Bulletin* Vol. 14,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15~27.

Utilizing the basic mathematical techniques of the life table, this paper formulates a cohort demographic model of career mobility in bureaucratic organizations. The model focuses upon the derivations of the effects of size and location of a particular entry cohort relative to the sizes of preceding and succeeding cohorts, the effects of intra-and inter-cohort competitions and the “compensatory effects” of a cohort on its career mobility. A new measurement procedure is developed of the seniority status of a cohor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umulative career history of the cohort. Also dicussed are the structural sources of position vacancies in bureaucratic organizations.

2. Migration and Urbanization

人口移動과 都市化

1678. 權容友, 宋一城, “首都圈 人口構造의 空間的 分布變化”(국문 및 영문요약), 研究論文集 제22집, 誠信女子大學, 1985. 8, pp. 49~72.

Kwon Yong-Woo, Song Il-Seong, “The Spatial Variations in Age Structure in the Seoul Metropolitan Fringe, 1970~1980”(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ungshin Journal* Vol. 22,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5. 8, pp. 49~72.

本考는 수도권의 광역화현상이 가져오는 국토 전체의 불균형과 정치, 경제, 사회, 안보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종래연구보고서들이

소홀히 해온, 人口와 관련된 모든 계획과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쓸모있는 분석도구로 여겨지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서 1970~80년의 수도권의 각 행정 단위 지역에서 전개되어 온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며, 연령별 인구구조와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수도권 지역의 사회경제적 생태구조를 밝히는 한편 연령별 인구구조변화에 입각한 수도권 지역 개발의 합리적인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1679. 高泰旭, “國內人口移動에 관한 研究—1970, 1980년 Census자료를 中心으로—”(국문), 論文集 14집, 全州大學校 1985. 12, pp. 147~161.

Go Tae-Wook, “A Study on the Intenral Migration”(in Korean), *Research Articles* Vol. 14,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1985. 12, pp. 147~161.

本考에서는 60년대 말과 70년대 말의 國內人口이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道內人口이동(with-in province)과 道外人口이동(out-side province) 즉 市, 道間轉入(in-migration), 轉出(out-migration) 및 都市, 농촌間人口이동에 관한 분석과 이와 관련된 要因들과의 人口學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1680. 李昌基, “濟州島의 人口이동(1965~80)”(국문), 人口문제논집 26號, 人口문제연구소, 1985. 12, pp. 89~99.

Lee Chang-Kee, “Interprovincial Migration of Cheju Islanders: 1965~80”(in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6, 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Seoul, Korea, 1985. 12, pp. 89~99.

本考는 人口구성과 人口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人口이동을 分析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人口移動추세와 人口이동方向, 이동 人口의 人口學의 특징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濟州島와 陸地부 사이에 일어나는 島外人口이동만을 다룬다. 특히 人口이동의 方向에 對해서는 ①제주도 人口의 出生地分布와 ②移入人口와 移出人口의 地域分布 및 鄉鄙分布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移動 人口의 性別·年齡別 구성과 教育程度 그리고 이동 人口의 職業分布 등의 人口學의 특징에 對해서 論하고 있다.

1681. 金慶秋, “江陵市의 都市化에 관한 研究”(국문), 논문집 제14집, 關東大學, 1985. 1, pp. 329~349.

Kim Kyeong-Choo, “A Study on the Urba-

nization of Gangreung City”(in Korean), *Research Articles* Vol. 14, Kwan Dong University, Gangreung, Korea, 1986. 1, pp. 329~349.

本考는 공업적 기반이 미약하고 농촌을 배후지 역으로 하여 行政的 기능의 中心地인 中小都市로서 江陵市의 都市化 과정을 밝히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都市化 指標를 선정하여 論하고 있다. 1) 人口의 增減: 人口증가율, 人口밀도의 변화. 事業人口구성비율의 변화, 2) 土地利用면: 森木, 농지, 牧場의 감소 垦地면적의 증가, 地價의 上昇, 지적의 세분화 3) 都市的 施設面: 住宅, 공장, 상점 및 사업소, 官公署의 증가 等.

1682. 朴泰和, “大邱의 都市化—그 歷史的 接近—”(국문 및 영문요약), 교육대학원논문집 제17집,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12, pp. 27~46.

Park Tae-Wha, “The Urbanization of Taegu—A Historical Approach—”(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Vol. 17,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1985. 12, pp. 27~46.

本考는 조선시대에서 現在까지 大邱都市化의 歷史的 变遷과정에서 1) 傳統的行政中心의 邑城都市로서 行政市域과 地理的 市域의 变化를 파악하고 2) 時代別로 空間的 擴大과정의 特성과 内部구조의 变化요인을 分析하며 3) 都市機能의 变遷과 都市成長 關係를 고찰하는 데 研究目的을 두고 있으며 時代의 區分은 조선시대(1910년 이전) 植民時代(1910~45년), 8·15이후 混亂期(1945~60년), 產業의 발달기(1960년대 이후) 등 四時代를 區分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現在의 도시형태, 구조, 景觀의 形成에 큰 영향을 주었던, 도시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歷史的 变形요인들을 追跡하여 復元하고 分析하고 있다.

1683. 翁義瑛, “로스엔젤레스의 ‘코리아타운’: 새로운 도시내 민족공동체의 등장”(영문), 人口 및 발전문제연구소 회보 제14권,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85. 12, pp. 29~44.

Yu Eui-Young, “‘Koreatown’ in Los Angeles: Emergence of a New Inner-City Ethnic Community”(in English), *Bulletin* Vol. 14,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29~44.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origin of Koreatown in Los Angeles, to describe its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to explain the causes of its development, and to speculate on its fu-

ture.

This study adopts a historic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rowth patterns of Little Tokyo and Chinatown in Los Angeles, utilizing several types of data resources such as the author's own observation on the process of the town's growth as one of its active participating members, articles regarding Koreatown in Los Angeles Times and Korea daily newspapers published in Los Angeles, the 1980-1981 Clarement Survey providing the basic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statistics about Koreatown.

1684. 鄭榮一, 金柔敬, “1980년 센서스 人口의 修正 및 1975~1980年 地역별 純移動者 推計”(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5권 제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7, pp. 150~177.

Chung Young-Il, Kim Yu-Kyoung, “Estimates of Age Distribution by Single Year for the Entire Population in 1980 Census and Net Migrants by Province, Intercensal period of 1975~1980”(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5 No. 1, Korean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5. 7, pp. 50~177.

本研究의 目的은, 美상무성통계국에서 推計한 것을 보면 우리 나라 1980년 센서스 人口는 6.4퍼센트나 純과소集計되었다고 보고된 바와 같은 부정확한 1980년 센서스전국 人口에 대한 性別, 各歲別 人口를 修正할 必要性에. 부응하여 1980년 Census 人口의 修正과 1975~1980년 市道別 純 人口이동자수 推計를 밝히는 것이다.

1685. 崔鎮昊, “都市住居경험이 移住者の 社會-經濟地位에 미치는 영향”(영문 및 국문요약), 國土研究, 제5권, 국토개발연구원, 1986, pp. 77~97.

Choi Jin-Ho, “Impact of Urban Living on Socio-economic Status of Return Migrants in Korea”(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 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Seoul, Korea, 1986. 6, pp. 77~97.

This paper examines impacts of migration experience of urban living o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urban-to-rural return migrants. Do return migrants from the city benefit from their migration experience? If they do so, what do they gain from the city? What kinds of experience in the city, are beneficial to them? These are the questions of specific interest in this

paper.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data from a sample survey of three rural towns in Gyeong-Sangbugdo province in Korea. The major purpose of the survey are to identify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urban-to-rural return migrant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return migrants' decision to move back to their place of origin; and to investigate the consequences of return migration for individual return migrants and for the communit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1686. 秋誠求, “淸州市의 도시화과정과 지역적 특성”(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4집, 한국방송통신대학, 1985. 9, pp. 557~574.

Choo, Seong-Goo, “A Study on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h'engju Ci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Vol. 4, Korea Air and Correspondence University, Seoul, Korea, 1985. 9, pp. 557~574.

本 연구는 청주시의 도시화과정과 지역적 특성을 明确하기 위해 人口, 土地利用, 산업구조, 景觀 등의 4個 도시화지표의 변화상을 中心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60~80年間 청주시의 총 人口는 104.7%의 증가율을, 세대수는 126.6%의 증가를 보여 급격한 인구의 도시화를 겪었다.

2) 동기간 동안의 人口밀도증감은 청주를 Overbounded City로 나타내고 있다

3) 土地利用面에서 볼 때 청주는 농업지역에서 도시상업 지역으로 변모했다.

4) 가구밀집도의 측면에서 볼 때, 청주시는 西部지역 편중으로 나타나 있다.

1687. 徐相權, “韓民族移住史現況에 관한 연구”(국문), 논문집 제4집, 경원대학, 1986, pp. 77~102.

Seo, Sang Gwon, “A Study on the History of Han-People's Migration”(in Korean), *Journal* Vol. 4, Kyeongwon University, Seongnam, Korea, 1986, pp. 77~102.

本 연구는 近代韓民族의 海外移住史에 관한 略史와 現況을 論하고 있는데 1) 滿州內 間島地方 2) 시베리아 地方 3) 日本지역 4) 美州 지방 등 4個 지역으로 나누어 각자 설명하고 있으며 結論부분에서는 移住史 연구를 통한 몇 가지 현실당면문제와 부딪치게 되는 內外部의 要因을 설명하고 있다.

1688. 南相駿, “古代韓國의 人口移動에 관한 연

구”(국문 및 영문요약), 地理學, 第32號, 大韓地理學會, 1985. 12, pp. 39~57.

Nam, Sang-Joon, “Population Migrations of Ancient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Geography* No. 32, Korean Geographical Society, Seoul, Korea, 1985. 12, pp. 39~57.

본 연구는 統一新羅 末期까지의 古代한국의 인구이동을, 인구이동연구의 3가지 주요 이슈인 이동의 원인, 性格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 人口現象에 의해 형성되는 場所의 지리적 특성, 場所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人口現象의 양식이라는 人口地理學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W. Petersen의 유형론을 채택하고 있고 유형별 사례는 記述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三國史記를 中心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三國史記에 나타난 人口移動의 사례들을 원인과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유형별 인구이동의 양과 方向에 중요한 역할을 한 山地, 海洋, 河川, 海岸 등 자연지리적 환경요소와의 구조적 관련이 분석되고 있다.

1689. 尹正淑, “開港場과 近代都市 形成에 관한 歷史地理學的研究—群山港을 中心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地理學 第32號, 大韓地理學會, 1985. 12, pp. 74~99.

Youn Jeong-Suk, “A Geographical Study on the Process of Modern City Forming as Opening Port: A Case Study of Kunsa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Geography* No. 32, Korean Geographical Society, Seoul, Korea, 1985. 12, pp. 74~99.

이 연구는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群山을 대상으로 하여 開港期의 한국 近代都市의 구조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그 연구시기는 群山에 있어서 근대도시형성의 최대 계기였던 1899년 開港부터 租界가 철폐된 1913年까지의 15년간을 취급한다. 개항후 15년간의 정치·사회·경제적인 영향에 의한 群山의 기능변화의 고찰을 中心으로 한 近代都市 内部構造의 형성과정을 고찰한다. 자료로는 군산의 개항과 관련된 역사적 제기록, 人口·商工業·交通關係·貿易 等 群山의 기능변화에 관련된 古記錄, 統計資料, 古地圖 등이 사용되고 있다. 개항이후 群山은 제1시기로 租界的 成立期(1879~1903年), 제2시기로 道路의 開通과 整備期(1904~1908年), 제3시기로 鐵道開港期(1909~1913年)으로 나눌 수 있다.

3. Family 家 族

1690. 趙英姬, 李基榮, “都市住民의 家政管理行動

유형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11권,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1986. 5, pp. 13~26.

Cho Young-Hi, Lee Ki-Young, “A Study on Urban Homemakers'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Home Economics Journal* Vol. 11, College of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6. 5, pp. 13~26.

本研究는 主婦들의 가정관리행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Burkley의 분류에 입각해서 金錢 및 時間資源에 초점을 맞춰 變化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되는 社會人口學의 變數 및 主婦의 自我實現과의 關係를 고찰하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가정관리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要因을 추출하여 그 獨立的인 効果를 分析하고 있다.

1691. 鄭喆洙, “男兒選好思想과 女性의 役割”(국문 및 영문요약), 社會科學研究 第1卷 第1號, 경북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 1985. 12, pp. 97~109.

Chung Chul-Soo, “Boy Preference and the Women's Rol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1 No. 1,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1985. 12, pp. 97~109.

本考에서는 우리 나라 남아선호사상이 언제부터 유래했고 현재 그 실태는 어떠하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分析함으로써, 남아선호의 타당성여부 및 그것이 社會的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나아가서 남아선호사상의 배제 및 平等한 자녀 교육을 為한 女性的 역할에 對해 고찰하고 있다.

1692. 洪亨沃, “韓國傳統住居生活研究Ⅱ—家族內人間關係의 構造를 中心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경희대 논문집 第十四輯, 1985. 12, pp. 61~88.

Hong Hyung-Ok, “A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Family Living and Housing Arrangement(II)—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tructure of family relationships in the Cho-Sun Dynas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Collection* Vol. 14,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61~88.

人間의 生活을 담는 容器로서의 住居의 기본적 기능과 社會規範間에는 상호관계가 있을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본 연구는 사회규범을 대전제로 住居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人間관계를 살펴보고,

그들의 意思疏通과 意思決定을 分析해 봄으로써 生活규범을 파악하며, 이것이 낳는 住居의 物理的 必要性에 의해 배가되는 전통적 주거와 人間生活과의 상호영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필자는 朝鮮의 住居는 人間의 '實存'을 더 옥 밝혀주는 空間的 해결로서 人間의 욕구에 맞는 것이 아니라, 文化에 의해 각색된 價值基準에 따라 '禮'와 '孝悌忠信'의 儒教論理의 實現의 場으로 구축된 場所라고 결론짓고 있다.

1693. 鄭址雄, 劉貴玉, “韓國農家主婦의 役割과 地位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서울대 새마을운동종합연구 第5卷 第1號, 1985. 12,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pp. 37~51.

Cheong Ji-Woong and Yoo Kwi-Ok, “A Study on the Role and Status of Rural Housewives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NU Saemaul Studies* Vol. 5 No. 1, Institute of Saemaul Undong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37~51.

이 연구의 목적은 1) 농가주부의 가사, 농업생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어느정도 되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탐구하고, 2) 이를 주부의 가족내에서의 역할과 지위와의 관계를 규정해보고, 3) 이러한 역할 및 지위의 변화에 따라 농촌여성 인력을 농촌개발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결과 1) 농가주부의 역할은 크게 증가했으나 지위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2) 교육수준이 높은 농가주부일수록 역할정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으며 3) 농가주부의 지위변화에 대한 남편과 주부의 인지에서는 주부가 남편보다 주부자신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1694. 柳好信, “우리 나라 主婦의 老人扶養意識・態度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人口保健論集 제5권 제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2, pp. 41~56.

Ryu Ho-Shin, “The Study of Family Service Attitude of Housewives for the Aged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5 No. 2, Korean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5. 12, pp. 41~56.

본 연구의 목적은 부양자를 통해 현재의 노인부양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부양자의 연령층은 30代가 가장 많고 그 동기는 '장남이기 때문에'가 72.3%에 달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께 용돈을 드리지 않거나(36.

9%), 필요시만 드린다(30.6%)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들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부양책임의식에서는 97.5%의 대다수가 자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위의 결과를 종합, 아직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에 큰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부양대책도 가족부양체제가 계속유지될 수 있는 방향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95. 金京然, “父母의 養育態度不一致性과 아버지의 拒否支配的 態度가 兒童의 自敬心에 미치는 影響”(국문 및 영문요약), 가정대학연구보고 제11집,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1985. 12, pp. 55~61.

Kim Kyung-Yun, “The Influence of Parental Inconsistency in Child Rearing Attitudes and Paternal Rejective Dominant Attitudes on Children's Self-esteem”(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College of Home Economics* Vol. 11, Pusan Nat'l University, Pusan, Korea, 1985. 12, pp. 55~61.

아동의 自敬心(self-esteem)은 부모의 태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부모의 영향요인 중 아동의 자경심 발달에 부정적인 것으로 인정된 비일관성과 거부지배성의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치될수록 아동 자경심 수준은 높아질 것이며 (2)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거부지배적이 아닐수록 아동의 자경심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下에 국민학교 4, 5, 6학년 아동과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의 가설을 검증하였고, 아울러 아버지는 직업과 교육수준이 높을 때 더 거부지배적인 태도를 지니고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696. 崔外仙, 柳香基, “家族의 權力구조와 主婦役割에 關한 研究”(국문), 人文研究 第七輯 第三號,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5. 9, pp. 681~712.

Choi Wae-Sun, Lew Hyang-Ki, “A Study on the Structure of Family Power and Sex-Role-s”(in Korean),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Vol. 7 No. 3,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Yeungnam University, Gyongsan, Korea, 1985. 9, pp. 681~712.

家族은 하나의 社會集團으로서 社會組織의 構造를 갖는 조직체인데, 家族집단의 보편적인 특성은 권위 질서관계와 性에 따른 역할분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구조를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는 근대화하였으나 家族內의 家父長的 權力구조가 核家族下에서도 그대로 存在하여 여 성의 종속적인 관계를 요구하는가하는 문제가 提起될 必要가 있다.

본 연구의 目的은, 夫婦간의 性役割分化와 權力分配를 알아봄과 동시에 이에 미치는 變因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中小도시의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론으로서 본 논문은 점차 전통적인 경향에서 平等主義의 근대화의 경향으로의 轉移이 권력구조에서는 役割認知의 양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見解를 밝히고 있다.

1697. 金兌玄, “老年期의 生活滿足度 研究—發達課業 成就度와의 相關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研究論文集 第二十三輯, 誠信女子大學校, 1986. 2, pp. 181~200.

Kim Tae Hyun,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Development Tasks Achievement in the Aged,”(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ungsin Journal* Vol. 23,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6. 2, pp. 181~200.

본 연구는 老年期의 生活만족도와 발달과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밝히고, 生活만족도와 발달과업 成就度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발달과업 성취도와 생활만족도와의 척도를 구성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가정한 배경변인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노년기는 자기통합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단계로 문제의 단계가 아니라 발달의 연속적 단계이므로, 발달과업 성취도를 높여주어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도록 노인자신과 가족 및 사회가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견해이다.

1698. 李仁喜, “現代社會에서의 老人の 住居意識에 關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同德論叢 第15輯, 同德女子大學, 1985. pp. 197~227.

Lee In-Hee, “A Study on the Living Concept of the Elders in the Modern Socie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Dong Duck Women’s University* Vol. 15, Dong Duc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5, pp. 197~227.

本研究의 目的은 漸次 高齡化 되어가는 現代사회에서 老人們의 住居形態選好意識 및 同居하고 싶은 子女가 누구인가를 把握하며, 그 선호요인을 分析함으로써 老人們의 慾求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老人們에게 老後安心하고 便

안히 생활을 營爲할 수 있도록 老人福祉의 基礎資料로 提示하고자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거주하는 60세이상의 특정지역의 노인에 대하여 임의선정하고 조사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결과를 住居형태선호의식, 同居하고 싶은 子女, 同居선호요인, 별거선호요인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있다.

1699. 崔耕順, “兒童發達에 따른 父親의 役割—兒童의 攻擊性과 依存性·사회성을 中心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論文集 제21집 부산여자대학, 1986. 6, pp. 627~670.

Choi Kyong-Soon,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I”(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is Collection* Vol. 21, Busan Women’s University, Busan, Korea, 1986. 6, pp. 627~670.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에 따른 부친의 役割을 밝히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 解明을 위해 父親의 存在가 어떻게 아동의 人格 및 社會性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兒童의 社會의 정서적 행동으로부터 探索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兒童의 社會化의 略이라고도 할 수 있는 3~5세 아동의 공격성·의존성을 分析하였는데 그 결과는 兒童의 行動특성, 즉 攻擊性·의존성·사회성의 분석결과는 공격성과 사회성에 있어서 양군의 아동에게 有意差는 認定되지 않았지만, 각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친은 모친과는 다른 영향력을 가졌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으며 그것은 아동의 신체적 공격성의 정도 의존에서 자립에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주며, 친화적 행동을 촉진해주는 역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700. 韓南濟, “家族價值觀의 變化”(국문),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7卷 第3號,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85. 12, pp. 137~170.

Han Nam-Je, “The Change in the Values and Attitudes of Family”(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7 No. 3,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137~170.

지난 40년간 일어난 가족가치의 변화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이 부분적으로 민주적 혹은 서구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일련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本稿는, 社會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包括的인 內容을 갖고 있는 家族가치관 중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몇 가지에 한정하여 그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1) 결혼관의 변화 2) 부부

관의 변화 3) 부모자녀 간의 변화 4)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4. Occupation and Labor Force

職業과 勞動力

1701. 鄭世華, 張必和, “사회발전에 따른 대학출신 여성의 취업확대방안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여성학논집 제2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85. 12, pp. 215~274.

Chung, Sei-Wha, Chang, Pil-Wha, “Strategies for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Womens' Studies Review* Vol. 2,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215~274.

경제발전에 의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구조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대학출신여성의 인적자원의 동력화와 활용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사회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本考의 目的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對해 論하고 있다. 1) 대학출신 여성의 취업 현황 및 대학재학중인 여성들의 취업 의식 2) 사회발전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급구조변화 및 전망 3) 社會발전에 따른 대학출신 고급 여성인력 취업의 문제점과 그 확대전략

1702. 黃益周, “韓國建設業의 雇用構造에 關한 연구 : 비공식 부문을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인류학논집 제8집,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1985. 7, pp. 144~219.

Hwang Ik-Joo, “Employment Structure of Korean Construction Industr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Anthropological Study Vol. 8,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7, pp. 144~219.

본 연구는 한국 건설업에서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한국건설업에서의 고용구조를 밝혀내는 작업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 초점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비공식부문의 고용구조에 두고 이 비공식부문내에도 다시 고용관계가 상이한 두개의 부문이 존재함을 발견함과 아울러 그 성격의 전형적 패턴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두부문과 공식부문 등 세 부문간에서 생산직 임시노동자들의 노동이동이 제한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건설업이 가지는 노동과정상의 특성과의 관련속에서 그려한 제한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을 시도한다. 끝으로는 이 세 부문으로의 분화, 이들

간의 노동이동의 제한 등의 현상이 함축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추세를 지적하고 그 속에서 건설업에서의 소상품 생산자의 존재형태의 변화를 조망하고 있다.

1703. 尹辰浩, “都市非公式部門의 勞動力 移動에 關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社會科學研究所 논문집 제5집, 仁荷大學校, 1986. 2, pp. 315~346.

Yoon Jin-Ho, “A Study on the Labor Mobility of Urban Informal Sector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Bulletin of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Vol. 5, Inha University, Seoul, Korea, 1986. 2, pp. 315~346.

이 논문은 노동력이동이라는 지표를 통해 비공식부문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도시로 이동한 노동력이 주로 흡수되는 부문, 비공식부문의 확대여부, 비공식부문에서 유출되는 노동력의 임노동자화 여부, 비공식부문의 노동력의 성격과 공식부문의 노동력의 성격과의 차이점 등이 주목된다. 필자는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서구의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으로부터 곧바로 유추될 수 없는데 그 지표로는 제한된 프로레타리아화 현상을 들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주변부 社會에서는 주변 대중과의 특수한 동맹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704. 박영옥, “도시비공식부문 노동과 국가 : 피고용노동을 중심으로”(국문), 현대사회 1986 여름호 제6권 제2호(통권 22호), 현대사회 연구소, 1986. 6, pp. 255~269.

Park Young-Ok, “The Labor in Urban Informal Sector and the States: Reference to Employed Labor”(in Korean), *Modern Society* Vol. 6 No. 2, Modern Society Research Center, Seoul, Korea, 1986. 6, pp. 255~269.

상기 논문은 경험적인 차원에서 노동에 대한 국가의介入을 통제 및 보호라는 두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가부문의 통제 및 보호 하에 있는 부문의 노동과 이 범위밖에 있는 배제된 부문의 노동을 도시비공식부문 개념을 차용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리하여, 도시비공식부문내의 노동의 사회적 존재형태와 국가와의 관련, 한국사회에서 비공식부문노동의 구체적 존재형태의 실현방식 등이 분석된다. 이 연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체의 피고용노동은 완전히 국가의 모든 법적 보호나 개입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05. 박재호, 박인호, 정봉교, “섬유생산업체 종업원의 이직원인 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대구 및 경부지역 섬유업체를 中心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人文研究 第7輯 第2號, 영남대학교人文科學연구소, 1985. 4, pp. 405~438.

Park Jae-Ho, Park In-Ho, Chung Bong-Kyo, "A Study of Causes of Employee Turnover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urnover in the Textile Industries in Daegu A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Vol. 7 No. 2,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Yeungnam University, Geongsan, Korea, 1985. 4, pp. 405~438.

本 연구는 섬유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中 종업원의 빈번한 이직현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섬유업체의 다음과 같은 측면을 中心으로 밝혀내고 있다. 1) 직무요인에 대한 만족도 측정 2) 이직의사와 직무요인의 관계 측정 3) 이직 이유에 대한 규명 4) 근속이유에 대한 규명 5) 조직의 규모에 따른 종업원의 직무만족도, 이상의 각 단계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섬유산업 체에 종사하고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이직문제를 소속회사의 조직 규모에 따라 세요인별 分析을 실시하고 있다.

1706. 許碩烈, “先進資本主義國과 新興工業國의 노동과정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29집, 충북대학교, 1985. 6, pp. 451~464.

Heo, Seok-Ryol, "A Study on the Labour Processes in the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and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Review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Vol. 29, Chungbuk University, Chöngju, Korea. 1985. 6, pp. 451~464.

本稿은 先進자본주의국의 노동과정의 변화과정을 자본논리와 관련시켜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신홍공업국의 공업화현상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살펴보려는 게 目的이다. 그리고 선진자본주의국의 노동과정변화에 따라 전개된 국제분업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결과 신홍공업국이 새로운 국제적 분업체계에서 주로 Talyor적 노동과정 조직을 사용하는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07. 崔孝喆, “都市非公式部門의 就業構造分析”(국문), 논문집 제4집, 大田大學, 1985. 12, pp. 235~255.

Choi Hyo-Cheol, "An Analysis on Structure of Employment in Urban Informal Sector"(in Korean), *Thesis Collection* Vol. 4, Taejon College, Daejon, Korea, 1985. 12, pp. 235~255.

本考는 오늘날 第3世界국가의 都市內部에 存在하는 과잉노동력은 先進자본주의국의 產業化과정

과는 달리 構造的으로 再生産되고 있으므로 이 部門에 대한 勞動市場分析과 經濟발전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問題의식下에서 都市非公式部門의 勞動市場을 구성하는 要素를 分析하고 특히 都市非公式部門의 就業구조를 파악함으로써 經濟발전 및 所得分配정책에 대한 含意를 발견할 수 있는 基礎를 마련하자는 데 그 目的이 있다.

1708. 朴京洙, “韓國 高齡勞動力 構造 및 屢僱對策”(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24집, 경상대학교, 1985. 12, pp. 99~111.

Park Jong-Soo, "Structural Change of the Aged Labor Force & Employment Policies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24 No. 2,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inju, Korea, 1985. 12, pp. 99~111.

本考에서는 고령勞動力급증과 기업의 早期停年化라는 도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早期停年的原因을 한국특유의 家父長의 年功序烈型 屢僱慣行에 의한 制度의 임금결정 假說을 中心으로 해명하고 정년연장의 대책으로서 能率給制의 점차적인 도입과 고령자채용제 및 諸人事관리대책을 기업 및 정부의 차원에서 제시했고 또한 고령자의 福祉를 위한 대책으로서 국민복지 年金제도의 早期施行을 위한 與件의 助成 및 改善方案을 강구했다.

1709. 黃甲鎮, “韓國의 職業構造와 社會階層移動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24집, 제2호 경상대학교, 1985. 12, pp. 181~194.

Hwang, Kab-Jin, "A Study on Occupational Structure and Social Mobility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24 No. 2, Chinju, Korea, 1985. 12, pp. 181~194.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 1966년과 1980년 사이에 직업대분류와 중분류의 人口분포를 中心으로 사회계층의 구조적이동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계 층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의 人口 및 住宅센서스보고와 관련된 문헌에서 발췌한 것이다.

1710. 허석렬,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관한 연구(I)－접근법과 현황분석”(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30집, 忠北대학교, 1985. 12, pp. 275~285.

Heo, Seog-Ryeol, "A Study on the Korea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Economy(I)"(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Review*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Vol. 30,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1985. 12, pp. 375~385.

이 研究는 女性의 경제활동에의 參加 即 生産活動과 상품의 流通 그리고 勞動力의 再生産과 女性의 生計活動등의 모든 분야의 참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本 研究는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의 社會經濟적 환경에 대해 서술하고 그에 관한 현존하는 統計자료에 대해 分析하고 있다.

5. Economic Development

經濟發展

1711. 韓昌浩, “韓國經濟와 技術開發”(국문 및 영문요약), 社會科學논집 3집, 한성대학 社會산업연구소, 1985. 8, pp. 267~289.

Han Chang-Soo, “Korean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 The Institute of Social Industry,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1985. 8, pp. 267~289.

本 論文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기술개발이 왜 중요한 의의를 갖는가를 밝히고 技術開發을 為한 몇 가지 提言을 하기 위하여 作成된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의 高度成長을 이룩해 왔는데 거기에는 外資도입과 導入기술을 개량하거나 獨자적으로 研究하고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술개발의 重要性을 인식할 때 한국 경제에 있어서 그 개발을 為한 가능하고도 效率的인 수단으로서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1712. 柳元赫, “多國籍企業의 對韓直接投資가 經濟發展 미친 영향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經營論集 第5輯, 관동대학 기업경영연구소, 1986. 3, pp. 57~80.

Yoo Won-Hyerk, “A Study on Influence of Economic Development by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to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Vol. 5, The Research Institu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wan Dong University, Kang Nung, Korea, 1986. 3, pp. 57~80.

이 研究의 目的是 開途國, 특히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多國籍企業의 現況과 영향을 밝혀보고자 하는 데 있다. 研究의 內容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多국적기업 진출現況을 分析하고 多국적기업이 投資하는 動機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開途國에 진출한 多國籍企業이 그 나라의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에 對해 統計자료에 의해 규명하여 그 결과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다국적기업에 대한 제반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현재의 多국적기업 狀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장구하는 形式을 취하고 있다.

1713. 金炳淳, “開發도상국의 海外直接투자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19집, 단국대학교, 1985. 6, pp. 469~494.

Kim Byung-Soon, “A Study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Faculty Research Paper*, Vol. 19,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1985. 6, pp. 469~494.

本稿에서는 개발도상국기업들이 外國에서 先進國다국적기업이나 現地기업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優位要素가 무엇이며 이를 기업이 國제경영 형태中 海外直接投資를 택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分析함으로써 開途國의 해외직접투자현상을 파악하는데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제시된 해외직접투자 이론을 관점에 따라 體系的으로 分類정리한 후 開途國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경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개도국기업의 경쟁상 우위요소와 투자동기를 分析하여 海外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쟁전략과 앞으로 投資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1714. 崔吉相, “한국경제開發政策에 대한 小考”(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6집, 木浦大學, 1985. 12, pp. 473~484.

Choi Gil-Sang, “Review on the Policy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of Mokpo National College*, Vol. 6, Mokpo National College, Mokpo, Korea, 1985. 12, pp. 473~484.

本考는 1960~1970년대 한국경제개발정책의 經濟哲學은 무엇이며 그 理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意識子 조면에서의 問題點과 이에 對한 對策을 고찰하고 있다.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參與를 통한 持續的이고 價值指向의 生產의 國民化를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意識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產業社會에 적응할 수 있는 經濟哲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715. 韓圭榮, “經濟開發期의 한국關稅정책에 관한 연구”(국문), 논문집 16집, 韓南大學校, 1986. 4, pp. 83~106.

Hahn Kyou-Yeong, “A Study on Korea Tariff Policy in Economic Development Periods”(in Korean), *Journal of Hannam University* Vol. 16, Taejeon, Korea, 1986. 4, pp. 83~106.

本 研究는 경제개발기의 한국관세정책의 意圖

와 手段을 中心으로 지난날을 검토해보고 長期관 세정책方向을 提示하였다. 1) 1960年代이전의 경 우는 50년대前半에는 戰費조달을 위한 財政收入에 중점이 주어졌으며 後半에는 산업보호와 物價安定에 力點이 두어졌다. 2) 1960년대의 관세정책은 收入증대, 產業보호, 그리고 輸出증대를 均衡의으로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3) 70년대의 경 우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均衡化示顯을 위해 重化學공업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고 增大하는 財政收入을 뒷받침하기 위해 輕工業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長期관세정책方向으로는 均等關稅체계에서 頃斜關稅體系로, 單純稅率단계보다 多段階稅率體系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方向임을 提示하고 있다.

1716. 金相漢, “經濟發展과 韓國의 金融制度”(국문), 새마을연구논총 제5집, 경북대학교새마을연구소, 1985. 12, pp. 129~148.

Kim Sang-Han, “Economic Development and Financial System in Korea”(in Korean), *Saemaul Research Review* Vol. 5, Saemaul Research Institute, Geongbu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1985. 12, pp. 129~148.

이 논문은 금융제도의 기능, 금융제도의 발전과 경제개발과의 관계를 고찰한 후, 경제발전의 전략과 금융정책의 형태간의 관계에 의한 「레이니스」의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금융정책의 역할을 분석, 同模型이 한국의 경우에는 맞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국금융제도의 구조에 있어서의 특징과 관리금융체계하의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제도의 운영이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관리금융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717. 李秀範, “韓國의 經濟發展과 租稅構造의 變化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社會科學研究所論文輯 제5집, 인하대학교, 1986. 2, pp. 257~286.

Rhie Soo-Bum,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 Tax Structure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Bulletin of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Vol. 5,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1986. 2, pp. 257~286.

본 연구는 우선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00년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하고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級出규모와 조세구조가 각각 어떻게 변화하며, 또 그 관계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조세구조발전의 패턴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경제발전과정을 특징지울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

고 이 지표와 稅收내지는 조세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적 특징을 도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지표로서 GNP를 택하였다.

끝으로 세출규모와 조세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후, 이 세출세입격차가 경제발전 및 조세구조변화에 주는 영향과 상관관계를 분석·검토하여 한국의 경우에 H.H. Hinrichs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전통사회, 移行사회, 근대사회의 3단계의 경제발전 과정을 거쳐 1970년 이후부터 한국은 근대사회 단계에 속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718. 李熙載, “韓國의 對外指向의 開發戰略의妥當性檢討”(국문 및 영문요약), 안동대학교 논문집 제7집, 안동대학교, 1985, pp. 533~554.

Lee Hee-Jae, “Appropriateness of Korea's Outward-Looking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Review* Vol. 7, Andong National Collge, Andong, Korea, 1985, pp. 533~554.

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 경제학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 개발경제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저개발국의 개발전략으로서 대표적이고도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전략 즉, 수입대체적 공업화에 의한 경제개발전략과 무역을 통한 경제개발전략의 내용과 비판, 그리고 한국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루어진 외형적 경제성장은 그 내부에 불균형을 축적하여 왔고 이것이 197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적 경제침체와 결합되어 한국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었음을 지적한 본 연구는 장기적 안정성장을 위한 개발전략의 방향으로서 2차산업에서의 부가가치의 증대와 內需工業의 확대를 위한 투자증대, 그리고 제3세계와의 경제협력증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1719. 金洙權, 宋璣燮, 徐東錫, 金喆煥,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한 研究—對外經濟從屬이 經濟成長과所得分配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實證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아주대학교논문집 제8집, 아주대학교, 1985, pp. 209~228.

Kim, Soo-Keun, Song Wi-Sup, Suh Dong-Suk, Kim Chul-Hwan, “Economic Dependency, Growth, and Distribution of Income: An Empirical Test”(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Ajou University Review*, Vol. 8, Ajou University, Suwon, Korea, 1985, pp. 209~228.

이 연구는 경제적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외부연결(external linkage)이 경제구조, 경제발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통계적 검증을 토대

로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종속이론의 현실적 타당성을 檢證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우선 檢證될 從屬理論의 명제들을 신고전학파 경제이론과 대비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종속이론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횡국면연구(cross-national study)와 지역연구(regional study)로 구분하여 檢討하였으며 최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종속이론의 諸命題를 검증하고 있다.

검증의 결과 종속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종속이론의 명제를 기각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1720. 劉鍾海, “地方化시대에 대응한 地域경제의活性화를 위한 政策方案”(국문 및 영문요약), 行政문제논집 제6집,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1985. 12, pp. 51~82.

Yoo, Jong-Hae, “Strategies for the Population Control in the Large Cit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of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Research* No. 6, The Institute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51~82.

本稿는 地域경제의 침체가 야기시키는 악순환의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침체에 대해 獨立변수와 종속변수로서 作用하는 人口의 大도시 집중억제 방안을 생각해보고, 地方化시대의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인 地域경제의 활성화 안을 수립해 봄으로써 向後도래 할 地方화 시대에 效果의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1721. 南相華, “경제발전,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不平等(平等)간의 關係에 관한 모형”(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4집, 湖西대학교, 1985, pp. 239~251.

Nam Sang-Hwa, “A Model on the 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Political Democracy and the Economic Equali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Vol. 4, Hoesoo University, Cheonan, Korea, 1985, pp. 239~251.

本 연구는 경제발전,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不平等(平等)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론적 문헌을 통하여 또한 경험적 연구자료를 연구검토해 봄으로써, 조사해보자 하는게 목적이다. 결론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한다. 1) 경제발전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촉진한다. 2) 경제발전은 직접적으로 또는 복지정책을 통해 경제적 평등에 기여한다. 3) 정치적 민주적 발전은,

그 자체로는 경제적 평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복지정책을 통하여 기여한다.

6. Political Development

政治發展

1722. 安清市, 鄭璣永, 李成炯, “新興工業國研究 試論：經濟成長의 動因과 政治發展의 展望”(국문),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제7권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7, pp. 147~184.

An Chung-Si, Jeong Jin-Young, Lee Seong-Hyeong, “A Study on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Dynamic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ct of Political Development”(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7 No. 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7, pp. 147~184.

최근 신흥공업국(NIC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신흥공업국에 대한 연구의 주요쟁점은 이를 나라의 경제성장요인과 그 주요한 특징들,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중심부국 가들의 대응전략, 그리고 신흥공업국과 다른 주변부국가들의 관계 및 장래의 발전 가능성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이들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에 기반하여 소위 ‘신흥공업국현상’이라 불리는 발전전략과 경험이 갖는 특징과 한계, 장래동을 조망하고 아울러 세계체제의 변화추이와 관련하여 NICs의 발전경로의 재조정문제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1723. 吉昇欽, “한국인의 정치의식의 변화 : 1945년과 1985년”(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7권 제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12, pp. 33~50.

Kil, Soong-Hoom, “The Change in Political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1945 & 1985”(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7 No. 3,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5. 12, Seoul, Korea, pp. 33~50.

위의 논문의 목적은 지난 40년간의 정치의식의 변화를 주로 국내적요인에 의해 생성되는 보수·진보주의적 次元과 민주·반민주주의적 次元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필자는 정치의식의 변화과정을 엘리트에 의한 일방적 조작의 관점에 비판하고 대중의 정치의식의 변화는 엘리트에 의한 정치의식과 대중적·자생적으로 생성된 의식 간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지난 40년간, 전자의 비중은 줄고 후자가 확대되는 경향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진보주의, 민주주의적 정치의식을 변화시키는 要因을 감성적 측면과 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724. 이남영, “민주적 신념체계 : 남한의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 1982”(영문), 한국사회과학논집 제12권, 한국사회과학연구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5, pp. 46~89.

Lee Nam-Young, “The Democratic Belief System: A Study of the Political Culture South Korea, 1982”(in English),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 12,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an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85, Seoul, Korea, pp. 46~89.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democratic belief system in a developing nation. Drawing upon a survey data collected in South Korea, the study seeks (1) to determine empirically the level of democratic attitudes held by members of different political strata such as local notables and the general public, (2) to identify the major factors affecting democratic attitudes, (3) to determine the level of consistency in the democratic belief systems held by members of different political strata, (4) to identify the major correlates of the belief consistency, and finally (5) to investigate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democratic belief consistenc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have shown that both the levels of democratic attitudes and belief consistency are not very high among Korean citizens.

1725. 宋復, “權力集中化의 社會구조적 요인－해방40년의 전개－”(국문), 한국사회학 제19집 거울號, 한국社会學會, 1985, pp. 69~89.

Song Bok, “An analysis on Social Factors of Centralization”(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19, Winter,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5, pp. 69~89.

권력의 集中化(集權化)와 分散化는 해방이후 40년간 줄곧 논란이 되어 온 문제이다. 이 글은 이 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권력의 집중화를 가능케한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권력구조의 형태로서 집권화와 분권화의 특징을 거론하고 분권화에 대한 요구에 반하여 오히려 집중화가 공고히 되어 온 현실을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필자는 사회구조가 기본적으로 兩向性을 띤 만큼 이념적으로는 분권화

된 권력구조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집권화의 요소가 강화되는 한 정치적 불안정은 벗어나기 어려우며 양자의 괴리는 커져 갈 것이라고 보고있다.

1726. 안병준, “정치변동과 정치발전”(국문), 현대사회 제6권 제1호 통권21호, 현대사회연구소, 1986. 3, pp. 3~20.

Ahn Byeong-Joon, “Political Change and Political Development”(in Korean), *Modern Society* Vol. 6 No. 1, Modern Society Research Center, 1986. 3, Seoul, Korea, pp. 3~20.

이 글은 한국이 1980년대에 겪을 정치변동과 민주화에 대한 쟁점을 검토해보고 한국정치의 좌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화는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관찰이 진행되는데 첫째는 정치변동과 민주화의 方法에 있어서 정치질서의 단절여부, 둘째는 남미적 권위주의와의 비교, 세째는 ‘민주화’개념에 관한 정확한 이해, 네째는 민주화와 정통성 문제의 관찰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한국정치가 현재 남미형의 ‘위기정치’와 선진국형의 ‘이익정치’의 전환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1727. 韓相震, “韓國 中產層의 政治意識”(국문), 國策研究, 제9호, 1986 여름, 민정당국책연구소, pp. 260~270.

Han Sang-Jin, “Political Consciousness of Middle Class in South Korea”(in Korean), *National Policy Research* Vol. 9, 1986 Summer, MINJUNG Party National Policy Research Center, Seoul, Korea, 1985, pp. 260~270.

중산층을 정치적 수준에서 접근할 때 두가지 대립적인 관점이 있다. 하나는 정부여당의 보수적 사고 혹은 비견없는 현실안주의 논리로서 중산층을 계체안정의 기반으로 삼고자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혁명적 사고의 논리로서 중산층을 보수적인 계층으로보는 관점이다. 이 글은 이와같은 두 관점을 벗어나서 중산층이 급진주의적 노선으로 나아가는 않는다면 하더라도 의미심장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적 성격을 충분히 지닌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중산층의 개혁지향성을 논증하고 온건주의적 개혁노선을 지지하고 현실에 대한 정치적 소외감과 미래에의 불안이 큰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이들의 정치적 중요성이 큼을 암시하고 있다.

1728. 劉晶煥, “정치발전을 보는 비교정치학의 사

작들—정치발전론과 歷史社會學을 中心으로—”(국문), 사회과학논총 제4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3, pp. 337~354.

Yoo Jeong-Hwan, “Views of Comparative Politics on the Political Development”(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 4,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ongju University, Chongju, Korea, 1986. 3, pp. 337~354.

本稿은 정치체계의 변동·발전이라는 문제에 대한 두개의 경쟁적 이론인 정치발전론과 역사사회학이 제시하는 논리의 차이를 「일반화의 지식」과 「개별화의 지식」의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변동·발전이라는 문제에 대한 비교정치학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稿에서는 정치발전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제외되고 있으며 정치발전론은 第3世界를 다루는 비교정치학의 한 분야로서가 아니라 정치체계의 변동·발전을 다루는 지배적 「이론의 틀」로써 다루어지고 있다.

7.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都市 및 地域開發

1729. 曹在六, “光州圈 地域開發事業의 事業內容과 效果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地域開發研究 第17卷 第1號,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5. 12, pp. 1~38.

Cho Chae-Youk, “The Study of the Project Components and Impact Analysis of Kwangju Regional Project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Vol. 17 No. 1, The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5. 12, pp. 1~38.

이 논문은 이미 시행된 바 있는 光州圈 地域開發事業의 事業內容을 살펴보고, 그 事業의 의도한 지역적인 수입수준의 상승과 人口流出의 억제라는 목표에 事業內容이 끼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그 事業의 歷事의 인 배경과 開發의 基本의 方向性, 計劃效果와 다른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 問題點과 政策建設에 對해서 다루고 있다. 事業效果를 評價하는 方法으로는 事業有無比較方法(with-without comparison analysis method)과 기타 目標 달성分析, 비용-效果分析, 費用-便益分析 등의 技法을 사용하고 있다.

1730. 申南秀, “住宅團地建設事業의 地域開發效果分析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地域開發研究, 第17卷 第1號,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5. 12, pp. 39~83.

Shin, Nam-Soo, “A Study on the Development Impact Analysis of Housing Estate Construction Project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Vol. 17 No. 1, The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5. 12, pp. 39~83.

本研究는 都市計劃事業中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都市民의 生活에 직결된 住宅團地와 住宅建設事業의 效果와 영향을 평가하는 方法과 이를 실제 狀況에 적용시켜서 住宅團地建設사업의 평가결과를 分析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결론적으로 住宅團地建設사업의 效果는 일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空間배치, 프라이버시, 審美的面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低所得階층의 住宅團地建設사업은 원래의 計劃에서 많은修正이 가해졌음을 말하고 있다.

1731. 李楨九, “工業團地 建設事業의 地域開發效果分析”(국문 및 영문요약), 地域開發研究 第17卷 第1號,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5. 12, pp. 85~107.

Lee Jung-Koo,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Construction of Ha-Nam Industrial Estate on Regional Development”(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Vol. 17 No. 1, The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5. 12, pp. 85~107.

本 논문은 河南工業團地建設事業의 地域開發에 미치는 效果에 對해서 1) 所得效果分析 2) 雇傭效果分析 3) 生產誘發 및 連鎖效果分析 等의 實證的 分析方法을 通해 分析하고 있다. 河南工業團地造成事業은 일단 地域住民의 바람에 부응하여 心理的인 만족을 준다는 궁정적인 面이 있는 반면 앞으로 工團入住業體의 가동을 통한 地域經濟에 미칠效果의 面에서는 所得과 雇傭效果는 기대치보다는 그렇게 크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732. 朴炳基, “麗水漁港建設事業의 地域開發效果分析”(국문 및 영문요약), 地域開發研究, 第17卷 第1號,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5. 12, pp. 109~137.

Park Byung-K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Impact Analysis of Yeosu Fishing Port Construction Project”(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Vol. 17 No. 1, The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5. 12, pp. 109~137.

1976년 第1단계 光州地域開發의 일환으로 착공되어 1978년에 完成된 麗水漁港建設事業이 地域開發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한 논문으로서, 1) 漁獲量 2) 本 漁港標準日選定 3) 漁船勢力變化 4) 出荷量 等을 調查資料로 하여 施設規模의 適正評價, 擴張計劃, 漁業從事機會의 擴大, 漁港勢力의 大型化 및 近代化 effect 그리고 所得 및 屢儂效果에 對해서 論하고 있다.

1733. 鄭煥庸, “道路 및 連陸橋建設事業의 地域開發效果分析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地域開發研究 第17卷 第1號,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5. 12, pp. 139~168.

Chung Hwan-Yo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Impact Analysis of Road and Bridge Construction Projects in Kwanju Regio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Vol. 17 No. 1, The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5. 12, pp. 139~168.

본 연구는 道路 및 連陸橋建設事業이 地域의 成長發展에 미치는 영향과 그 方向에 대하여 綜合的으로 확인,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그 촛점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事業의 效果를 확인·분석하는 과정과 方法을 模型화해보고, 이 틀속에서 사업의 효과를 목표달성을 축면에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모하고 개선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事業效果의 測定·評價方法으로는 事業有·無比較方法(with-without project comparison analysis)와 目標達成分析(goal-achievement analysis)와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 등이 사용되고 있다. 직접적인 效果를 中心으로 個別事業의 경제성을 추정한 결과, 모두 發生費用에 對해 發生收益이 높아 경제성이 있는 事業으로 評價할 수 있으며, 설정목표도 大體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

1734. 朴光曙, “비용-수익분석에 의한 지역개발사업평가-목포시 상수도 확장사업의 경우”(국문 및 영문요약), 地域開發研究 第17卷 第1號,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5. 12, pp. 169~194.

Park Kwang-Seo, “The Evalu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by the Cost-Benefit Analysis-in case of Mokpo Water Supply Project-”(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Vol. 17 No. 1, The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5. 12, pp. 169~194.

본 논문은 합리적인 project선정 및 그 평가의

기초가 되고 있는 비용-수익분석(cost-benefit)방식과 그 문제점을 고찰하여 이를 기초로 1979년부터 차관사업으로 시행하여 1981년에 완공된 목포시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시행된 project를 실증적으로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떨자는 비용-수익분석方式의 문제점으로, 첫째 「프로젝트」의 수명기간중 어떤 항목들을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인가하는 식별(identification)의 문제, 둘째로는 「프로젝트」의 수명기간중 미래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時間選好率의 결정문제와 자본의 기회비용의 평가문제, 세째로는 「프로젝트」의 선정, 건설 및 건설뒤의 사용시 야기되는 위험에 대한 평가문제, 네째로는 「프로젝트」의 건설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용이 소득이 불균등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귀착수익과 비용의 평가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1735. 金仁, “서울近郊村自然部落의 「都市마을團地」開發方案에 관한 연구”(국문), 地理學第32號, 大韓地理學會, 1985. 12, pp. 100~110.

Kim, Inn, “A Study on Development of Villages nearby Metropolitan Seoul to 「Urban Residential Village District」”(in Korean), *Geography* No. 32, Korean Geographical Society, Seoul, Korea, 1985. 12, pp. 100~110.

위 연구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는 純轉入超過現象에 주목하여 대도시 주변지역에서의 여러 변화양상, 특히 居住地郊外化 현상과 관련한 大都市生活圈近郊地域의 自然部落을 대상으로 都會型 住居團地開發 및 活用方案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리하여 1) 수도 서울의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2) 서울의 宅地 및 住宅부족현상을 해소하며 3) 서울도시민에게 생활환경 개선을 提高하고 아울러 서울주변지역에서 농촌도시적 발전을 유도하며 4)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및 편의시설의 廣域의 分散을 촉진하며 5) 서울대도시 생활권 廣域都市體制의 기반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1736. 金東建, “都市 및 地域開發을 위한 財源調達 및 民間參與方案에 관한 연구”(국문), 行政論叢 第24卷 第2號,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5. 12, pp. 55~76.

Kim Dong-Kun, “Financing and Privatizing the Public Service for the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in Korean),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12 No. 2,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55~76.

이 연구는 國土의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都市 및 地域開發의 촉진과 地域經濟의 활성화를 위

한 각종 投資事業의 財源調達方案을 강구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연구의 초점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民間의 參與를 活性化하는 方案에 놓여져 있다. 필자는 국민의 가치관이나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복지의 국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公共財 및 公共서비스의 供給에 民間參與를 적극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의 확보와 민간참여에 방해되는 제도적 장치의 단계적 제거가 마련되어야 함도 아울러 제언하고 있다.

1737. 文炳鎭, “韓國 農村開發政策에 관한 一考察”(국문), 地域社會開發研究 第十輯, 韓國地域社會開發學會, 1985. 12, pp. 3~21.

Moon Byong-Jip, “A Study on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in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Vol. X, The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Seoul, Korea, 1985. 12, pp. 3~21.

이 논문은 2000년대의 농업 및 농촌의 실상을 예측하여 거기에 相應하는 政策方向과 開發戰略을 定立함으로써 福祉農村建設의 方法論을 모색 코자 한다. 필자는 농업정책의 方向으로 農地의 所有上限線 5ha수준으로 확대, 쌀 생산기반의 최대한 확대, 農地의 他用途轉用의 억제, 농업부문의 연구지도체계의 확립등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이와같은 농업개발의 전략하에서 농업부문의 단지조성과 농촌인력자원개발, 영농 후계자양성책, 복지시설의 개선책, 의식구조의 개선과 농촌개발 행정체계의 개선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1738. 하성규, “한국에서의 도시불량주택과 정부의 대응”(英文), 地域社會開發研究 第十輯,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1985. 12, pp. 37~55.

Ha Seong-Kyu, “Substandard Urban Settlements and Government Response in Korea”(in English),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Vol. X, The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Seoul, Korea, 1985. 12, pp. 37~5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reefold; First, to examine some characteristics of substandard urban settlements; second, to look at Korean evidence on shanty towns in view of housing poverty; and third, to examine views on shanty housing and some of the alternative government responses for dealing with these problems. The author maintains that urbanization and substandard urban settlements are positive contribu-

tions to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life of a modernising society. Admittedly, they give rise to the problems which a group of writers have pointed out, but given the desire for industrialization, there is probably no alternative.

1739. 朴鍾浩, “地方政府의 地域社會開發戰略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論文集 第18輯, 清州大學校, 1985. 12, pp. 385~415.

Park Jong-Ho, “A Study on Main Strategies for the Community Development in Local Government”(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Review* Vol. 18,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1985. 12, pp. 385~415.

지역사회개발은 地方政府가 主導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地方政府가 어떤 地域社會開發戰略을 펴나가는것이 바람직한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은 이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지역사회개발의 본질에 관하여 지역사회개발의 개념정의와 주체, 목적, 이념 등이 논의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戰略에 관해서는 지방정부의 input기능의 강화, 上向式 접근方式의 확충, 복지 모형의 개발, 개발사업에 대한 과정관리 및 내용 분석에 있어서의 합리성 구현등을 지적하고 있다.

1740. 李恩淑, “交通과 都市의 公간적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論文집 제16집, 祥明女大, 1985, pp. 281~311.

Lee Eun-Sook, “A Review of Literature on the Relation between Transportation and Urban Spatial Growth”(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Collection of Theses* Vol. 16, Sang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5, pp. 281~311.

本研究는 交通의 발달과 그와 관련된 人口成長과 地域의 擴張을 主題로 한 모델이나 理論을 고찰함으로써 交通과 都市成長과의 關係를 규명하는데 있어서의 理論의 根據를 마련하는데 目的이 있다. 그 內容으로는 交通과 都市成長과의 一般的인 關係에 對한 記述과 이러한 關係를 설명하는 Model로서 1) 交通時代區分을 為한 모델 2) 交通과 都市의 地域의 成長과의 관계에 관한 모델 3) 人口밀도 傾斜에 의한 都市成長모델 等을 記述하고 있다. 結論에서는 모든 이론과 모델에서 建物占有의 擴張이나 人口密度分布 변화에 영향을 주는 基底에 놓인 要因은 交通手段이나 交通網의 變化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마무리짓고 있다.

1741. 金安濟, “都市 및 地域開發과 情報管理體制 (II)”(국문), 환경논총 제16집, 서울대학교 환경

- 대학원, 1985, pp. 1~21.
- Kim An-Jae, "Information Systems for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s"(II)(in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Vol. 16,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pp. 1~21.
- 이 연구논문은 首都圈의 開發計劃을 中心으로 이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實態에 對해 分析하는 것으로서 I 편에 이어 都市 및 지역개발에 있어 정보자료의 수집 및 처리과정, 정보체계의 조직과 관리 그리고 도시지역정보체계의 장래 전망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分析하고 있다.
1742. 具本英, “地域社會開發計劃에 관한 小考”(국문 및 영문요약), 地域社會開發研究, 제10집,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1985. 12, pp. 57~67.
- Koo Bon-Young, "A Study on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Vol. 10, The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Seoul, Korea, 1985. 12, pp. 57~67,
- 필자는 地域社會開發이란 일정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參與와 자발적이고 共同적인 노력에 의해 공통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따라서 지역사회 전체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活動이라고 定義하면서 지역개발계획의 意義와 必要性, 지역사회개발계획의 原理와 유형 그리고 그 特性에 對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1743. 高南旭, 金泰保, “濟州道 觀光開發과 道民所得證大의 연계추진방안”(국문), 社會發展研究 제2집,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1986. pp. 159~233.
- Ko Nam-Wook, Kim Tae-Bo, "A Purposive Plan for Linking Tourism Development to Provincial People's Income Increment in Cheju-Do"(in Korean), *Social Development Review* Vol. 2 Social Development Institute Cheju University, Cheju, Korea, 1986. pp. 159~233.
- 本研究는 觀光開發이 國內外 觀光產業을 진흥시킴으로써 住民所得의 창출 등 地域經濟의 成長에 상당히 기여하고 직접·간접으로 지역주민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아래 제주도 관광개발이 道民所得 增大와의 연계관계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各國의 事例를 中心으로 연계효과를 실증적으로 分析한 후 제주도 관광개발의 道民所得 증대와의 연계추진 方案을 모색하고 있다.
- 效果와 發展方案”(국문 및 영문요약), 새마을운동종합연구 제5권 제1호,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1985. 12, pp. 99~123.
- Suh Gyu-Sun, and Cheong Ji-Woong, "A Study on the Community-Based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grams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Their Impact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NU Saemaul Studies* Vol. 5 No. 1, Institute of Saemaul Undong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99~123.
- 이 연구는 農村振興廳이 1973~1984년에 實施한 「새마을所得增大示範地域育成事業」을 프로그램分析方法에 의하여 投入과 過程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效果와 關聯變因을 농촌진흥청의 事業報告書와 事業이 實施된 지역의 里長 및 새마을영농기술자회장등의 態度를 통해 測定評價함으로써 이 事業의 效果와 發展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프로그램分析에서는 농촌진흥청의 「駐在地域開發事業」 및 「새마을소득증대 시범지역육성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事業의 ①목표와 범위 ②推進體制 ③目標達成戰略 ④受惠集團 ⑤有關機關과의 관계 ⑥認識된 事業의 效果 및 重要性에 해당되는 内容을 分析하고, 265명의 關係公務員에게 질문지에 의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고찰하고 있다.
- ## 8. Modernization and Social Change 近代化와 社會變動
1745. 孫鳳基, “자살기도방법에 대한 사회정신의 학적 고찰”(국문 및 영문요약), 人間科學 제10권 제4호, 한림대학, 1986. 4, pp. 5~12.
- Shon Bong-Gi, "A Psychological Study on the Methods of Suicidal Attempt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Human Science* Vol. 10 No. 4,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1986. 4, pp. 5~12.
- 本考는 자살기도方法으로서 1) 약물복용 2) 목매달기 3) 배찌르기 4) 연탄가스 5) 기타 6) 불명등 6개 항으로 분류한 후에 1) 연령別 2) 性別 3) 교육수준別 4) 직업別 5) 宗教別 6) 자살기도회수 7) 자살상념기간 8) 자살계획기간 9) 정신파괴진단 10) 가족의 자살경험 11) 위험도 측정(Weissman과 Worden의 측정方法에 의한)등과 자살기도方法間의 關係에 對해서 調查, 검토하고 이중에서 자살기도자들의 90%이상이 약물복용方法에 의하고 있음을 서술하면서 약물을 중심으로 한 方法論의 정밀한 研究를 촉구하고 있다.
1746. 이동인, “유교와 근대화 : Max Weber의 유

교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국문), 한국사회학연구 제8집,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5. 12, pp. 7~28.

Lee Dong-In,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A Critical Review on Max Weber's View of Confucianism"(in Korean), *Korean Sociological Research* Vol. 8,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7~28.

사회조직으로서의 유교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그 세력이 매우 미약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가르침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가치규범의 체계의 기충을 이루고 있다면 유교적 가치규범이 한국의 근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연구를 한 기초작업으로서 종교와 근대화의 관계에 대하여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유통과 자본주의 정신」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률 서술하고, 그가 근대화와 관련해서 유교의 가치규범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소개하고, 이를 유교교리 및 「후기유교가설」(post-Confucian hypothesis)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1747. 朴東玉, “社會發展과 女性의 社會的地位와 役割分析－人口의 노령화 문제에 따른 代案模索”(국문), 논문집 17집, 聖心女大, 1985. 5, pp. 137~152.

Park Dong-Ok, "Analysis of Changing Women's Social Position and Social Role in Relation with Societal Development"(in Korean), *Journal of Seongsim Women's University* Vol. 17, Seongsim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5. 5, pp. 137~152.

本研究는 社會발전에 따른 女性의 地位와 役割에 對한 概念定立과 그 役割의 변화를 본 다음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目的이다. 그 內容은 제Ⅱ장에서 社會발전과 함께 女性의 地位와 역할이 변화한 當위성의 假說에 입각하여 近代化와 역할의 변화에 대한 개념을 定立하고 있으며 제Ⅳ장, Ⅶ장에서는 女性의 地位와 역할에 대한 量的, 質的分析를 시도하고 있다.

1748. 玉亮鍊, “韓國近代화와 社會변동의 歷史的模索－思想과 運動을 中心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社會科學논총 4권 제2호,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5. 12, pp. 81~92.

Ock Yang-Lyun, "A Historical Study of Modernization and Social Change in Korea: focusing on Social Thought and Social Movement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4 No. 2, College of Social Sciences

Pusan National Society, Pusan, Korea, 1985. 12, pp. 81~92.

본 연구는 우리 나라 歷史中 특히 사상적 배경과 社會의 운동에서 社會의 변동을 진단하고 그것이 近代化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느냐를 社會學의 視點에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19C 중엽에 社會체제 및 사회적 모순에서 시련을 겪었으며 그것은 외부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사상적인 측면에서 開化사상과 東學사상이 대두되었으며 社會운동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團體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本考에선 편의상 대한자강회와 신민회에 국한) 本 연구는 이러한 사상과 운동의 측면이 우리 近代化的 社會변동에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1749. 李鍾旿, “60~80년대 공업화과정에서의 社會구조의 변화와 社會운동”(국문), 한국사회학 19집 겨울, 韓國社會學會, 1985. pp. 46~60.

Lee Chong-Oh,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Movement in the Period of the Industrialization: 1960 ~1980"(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19, Winter,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5, pp. 45~60.

필자는 지난 40년간의 사회운동을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의 변화라는 맥락아래 60년대 이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나누어 개관하고 있다. 45년이후의 사회운동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단절되어 60년대, 70년대는 기본적으로 도시적인 새로운 차원의 사회운동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업화과정에 따른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의 변화와 점차 민주, 민중, 민족이 기본이념으로 등장하였으며 사회운동 가운데에서 노동운동의 위치와 그 전망이 주목되어진다.

1750. 李南馥, “韓國產業構造의 變化－그 사회적 적응성과 한계성－”(국문), 한국사회학 제19집 겨울號, 한국사회학회, 1985. pp. 97~111.

Lee Nam-Bock,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on the Possibility and the Limit of Social Adjustment"(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19, Winter,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5, pp. 97~111.

본 논문은 한국경제구조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1) 혼존하는 한국경제구조를 Luhmann의 '社會체계론'적 입장에서 해석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한국의 社會구조의식이 외생적 변화촉구요인인 산업화를 응전적

으로 받아들이고 산업화가 오늘의 한국경제사회 구조를 변형시키면서 우리 나름의 응전적인 산업화 대응요인을 변화발전시키고 있다고 한다. 3) 외생적 변화촉구요인인 산업화가 오늘날 한국 경제·사회구조에 사회적 불평등을 낳게 했다. 4) 한국의 산업화가 기능, 구조론적 시각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은 그 산업구조의 재편성이 “아래로부터의” 변화요구를 피할 수 없이 “위로부터의” 개혁적 정책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전해야 한다. 5) 이러한 요구가 극히 형식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변화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자생적인 자주가 경제적 우위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보다는 社會的 평등의 이념적 요인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社會的 봉괴 가능성이 있다.

1751. 崔洋夫, “한국社會의 產業化와 傳統農村의 해체 : 한국농촌에 대한 인식의 틀을 위한 하나의 시론”(국문), *한국사회학 제19집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1985, pp. 121~141.

Choi Yang-Bu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Rural Transformation in Korea: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Understanding of Rural Transformation”(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19*, Winter,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5, pp. 121~141.

本考는 한국농촌인식의 기본틀의 3가지 요소로 농가, 농업, 마을을 들면서 한국농촌의 구조적 혁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석지표로 삼는다. 그 내용에 있어선 전통농촌의 구조적 혁신을 초래하는 계기를 산업화에 두고 그 양상을 도시화·공업화·개방화·민주화로 요약하면서 산업화에 따라 나타나는 전통농촌의 변모양상을 살펴보고 있는 데 그 요지는 ①농가는 소농·자급자족적 성격에서 상품생산적 성격으로, ②농업은 미곡中心의 단작에서 상품농업중심의 다작으로 ③마을은 자치적 지역단위에서 거주 및 생산공간의 단위로 각기 전환되면서 전통농촌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농촌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그 해결방향을 암시해주고 있다. 끝으로는 농촌문제에 접근하는 사회과학적 기본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1752. 金泳謀, “한국사회의 階級構造와 그 變化”(국문), *한국사회학 제19집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1985, pp. 153~169.

Kim Yong-Mo, “The Class Structure and Its Change of Modern Korea: 1945~1980”(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19*, Winter,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Association, Seoul, Korea, 1985, pp. 153~169.

本研究는 우리 나라의 社會계급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 변화되었으며 그 구조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目的이 있다. 해방이후의 社會변화 중 특히 都市化와 工業化를 중심으로 한 近代化정책은 우리 나라 社會계급·社會계층을 재편성시켰다. 그 결과는 현대 歐美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中產層을 띠고 노동자층가라는 社會계급의 兩極化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資本主義의 계급분화는 서구에서처럼 生產관계에서보다도 오히려 權力관계 또는 非經濟적 요인에 의해 形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753. 강희경, “신흥공업국가의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30집, 忠北大學, 1985. 12, pp. 313~331.

Kang Hee-Kyung, “A Study on the Social Change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Review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Vol. 30*,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1985. 12, pp. 313~331.

本 연구는 현재의 신흥공업국의 자본축적의 메카니즘과 그 한계에 대한 구명, 그리고 신흥공업국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그 内的 문제를 外部의 요인과 역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사실적으로 신흥공업국현상에 접근하려는 기본적인 시각下에서 신흥공업국 가운데에서도 아시아에 위치하면서 1960년대초에 일제히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을 中心으로 살펴보고 있다. 먼저 신흥공업국의 定義와 형성배경 그리고 신흥공업국의 자본축적의 특징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본 뒤 신흥공업국의 社會변동에 對해 論하고 있다.

1754. 裴圭漢, “한국의 工業化와 근로자의식의 变천”(국문),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Vol. 7 No. 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12, pp. 233~257.

Bae Kyu-Han, “The Industrialization in Korea and the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Korean Workers”(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7 No. 3*,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233~257.

本 연구는 해방이후 40년간 한국사회의 공업화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특정의 계층의식을 형성해 오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공업화시기별 근로자의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내용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민의식의 현상적 파악과 앞으로의 경향에 對해 論하고 있다.

1755. 장윤식, “向都農民：상업적 농업의 흥기”(영문),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회보 제14권,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85. 12, pp. 45~59.

Chang Yun-Shik, “Peasants Go to Town: The Rise of Commercial Farming in Korea”(in English) *Bulletin* Vol. 12,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45~59.

During the 1960s and 1970s, the agricultural sector witnessed a considerable increase of productivity along with a growth of manufacturing industry. Production process also underwent significant structural transformation, which resulted in the rise of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This paper attempts to document and offer an explanation for this rise of commercial farming and attendant change in peasant marketing patterns.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commercialization is found to have been associated with such factors as the growth of cities, the increase of the non-farm population, a considerable rise in the wage level of urban workers resulting from the sharp growth of industries in the 1960s and 1970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food consumption patter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farming.

9. Social Welfare

社會福祉

1756. 李奎植, “醫療需要의 價格 및 所得彈力度－
직장 및 公·數의료보험적용자의 外來수요에
관하여”(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5권
제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2, pp. 57~
84.

Lee Kyu-Sik, “Estimation of Price and Income Elasticities of Demand for Medical Care Servic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5, No. 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5. 12, pp. 57~84.

本研究는 다음과 같은 問題의 인식下에서 의료 보험가입자에 대한 의료수요의 價格 및 소득탄력도를 測定하고 있다. 1) 보험가입자의 수요량증가로 인한 보험財政의 惡化문제 2) 보험가입자의 의료수요증가가 의료이용자의 형평성을 저해 시킨다는 問제 ①의료보험가입자와 未加入者間의 問제 ②보험加入者間에 의료이용량의 차이에 기

인하는 형평상의 問제

1757. 金基玉, 李奎植, “地域醫療보험의 醫療利用度 및 所得再分配效果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5권 제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2, pp. 85~100.

Kim Ki-Ok, Lee Kyu-Sik, “A Study on the Effect of Income Distribution in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Program”(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5 No. 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5. 12, pp. 85~100.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는 被傭者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과 公·數의료보험이 있으며 自營者나 地域住民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있는데, 前者の所得再分配 효과에 관하여는 所得逆進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研究보고가 많은 데 반해 後者の 경우는 보험료의 부과방식이 前자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所得逆進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는 바 本考에서는 地域의료보험의 所得계층별 의료이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소득계층별 보험료와 보험급여와의 관계를 分析하고 있다.

1758. 高聖希, “都市영세지역의 1次의료서비스에
관한 고찰”(국문 및 영문요약), 人口보건논집 제
5권 제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2, pp.
115~129.

Koh Sung-Hee, “Study on the Medical Care Services in Low Income A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5 No. 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5. 12, pp. 115~129.

이 研究는 1984년 5월부터 1985년 6월까지 1년간(진료중단 기간인 84년 7~8월간은 제외) 도시 1次보건의료시험사업소에서 1차 진료를 받은 총 환자 950명의 진료기록부를 分析, 1차진료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그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진료Service를 이용한 환자는 女子가 男子보다 1.7배 많았으며 난령별로는 0~19세 연령군이 가장 많아 44.3%를 점하고 있다.

2) 시범사업에서는 1년간 950명의 환자에 대하여 1,154건을 진료하였고, 의사방문회수로는 총 2,214회, 치료일수는 총 7,192일로 나타났다.

3) 환자들의 가장 많은 질병은 急性上氣道감염(30.5%)이었으며, 10가지 가장 혼한 질병은 全體의 79.0%였다.

4) 환자의 개인 속성 中 치료日數에 영향을 가 장 많이 미치는 요인은 年齡으로 이는 치료日數의 총分散을 10.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59. 黃清一, “社會복지 정책으로서의 公的 扶助에 대한 고찰”(국문 및 영문요약), 社會과학논총 제3집, 청주대 사회과학연구소, 1985, pp. 49~98.

Hwang Chung-II, “A Study on the Public Assistance as a Social Welfare Polic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ongju University, Chongju, Korea, 1985, pp. 49~98.

本考는 社會복지의 기초개념(Ⅱ)에서 社會복지의 개념적 특성과 범위, 사회복지의 사상적 측면과 定義의 측면으로 區分하여 고찰하고, Ⅲ章에서는 社會보장의 개념과 범위, 公的 부조의 원리 원칙을 다루었으며, Ⅳ장에서는 우리 나라 公적 부조제도의 現況과 保社部행 정기구와 公的 부조 행정체계를 고찰하며 V장 우리 나라 公的 부조의 문제점과 개선 方向에서는 이를 정책적 측면과 傳達體系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760. 南基旻, “福祉국가의 形成과 危機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3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pp. 171~199.

Nam Ki-Min,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ocial Science Review* Vol. 3,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ongju University, Chongju, Korea, 1985, pp. 171~199.

本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의 形成에 對해 19C末 ~20C初의 福祉국가의 태동파, 그로부터 2次대전 후 英國복지국가가 탄생할 때 까지의 과정을 살펴 보고, 福祉국가의 위기에 대해서는 먼저 2次대전 후 복지국가가 지지를 받게 된 正當性의 배경과 1970년대에 들어와 그 正當性을 상실한 배경을 살펴보고, 戰後 복지국가에 대한 保守主義 및 急進主義 입장의 비판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복지국가의 새로운 단계에서는 복지국가를 계속 시킬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복지국가의 理想型을 고찰하고 있다.

1761. 曹興植, “產業福祉의 概念고찰”(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3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pp. 201~225.

Jo Heung-Seek, “A Study on the Concept of Industrial Welfar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ocial Science Review* Vol. 3,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ongju University,

Chongju, Korea, 1985, pp. 201~225.

本稿는 產業복지의 영역에서 산업사회의 下部 구조인 노동자, 기업 및 社會가 갖는 相互成立條件들의 分析을 통해 社會복지內에서 차지하는 산업복지의 개념규정을 명확하게 提示하는 데 그目的이 있으며 研究方法은 人間關係論의 接근方法과 產業關係論의 接근方法을 사용하고 있다.

1762. 朴丙錫, “社會복지와 社會사업의 개념定立과 相互關係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39집, 경북대학교, 1985. 8, pp. 109~121.

Park Byoung-Suk, “A Study on Definition and Relation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Work”(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Review of Kyung Pook University* Vol. 39,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1985. 8, pp. 109~121.

本考는 社會복지와 社會사업 및 그 關係개념들을 정확하게 구축해서 廣範하게 合意를 보는 일은 社會복지界의 正體를 확립시켜 團結과 成熟을 促進시키는 1次의인 手段이 된다는 問題의식下에서 社會복지 관련개념들 中에서 現實의으로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개념인 社會복지개념을 문헌조사를 통해서 定立한 後에 이 개념과 社會사업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1763. 李鉉承, “福祉社會保障制度 小考”(국문 및 영문요약), 明大論文集 제17집, 明知大學校, 1986. 5, pp. 181~198.

Lee Hyun-Seung, “A Study on the Welfare and Social Security System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Myongji University Journal* Vol. 17,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1986. 5, pp. 181~198.

오늘날 社會保障이란 개념은 몹시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사회건설에 따르는 사회보장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광범위한 총체적 사회개발의 범주내에서의 社會保障을 연구하고 이어서 선진각국의 社會보장제도를 高福祉國家, 福祉國家, 低福祉國家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 검토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체로 社會保障이란 ①社會보험 ②公的 扶助 ③社會福祉 서비스 등 세가지로 구분전개되고 이들 세 요소의 적절한 배합조정이야말로 사회보장제도의 실천적 구현의 관건이라고 한다. 또한 위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구분기준은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자유이념에 기초한 국민여망에 입각하여 국가가 직접介入 내지 조정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및 확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64. 노정현, “한국의 도시부문에서의 공공서비스의 시행”(영문), 社會科學論集 제16집, 延世大學校, 사회과학연구소, 1985. 12, pp. 117~135.

Ro Chung-Hyun, “Delivery of Public Services in Urba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Shelter Problems”(in English), *Social Science Review* Vol. 16,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117~135.

In the last two decades Korea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n economic growth. However, the housing supply rate has not increased along with economic growth. The housing situation in the urban sector becomes even more serious.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examines; 1) current housing situation 2) causal factors for housing shortage, 3) structural aspects of housing administration and 4) housing policies. This paper also attempts to identify fundamental problems and suggests alternatives and recommendations.

1765. 韓昌榮, “韓·美老人文化와 福祉行政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21집, 제주대학교, 1985. 12, pp. 219~242.

Han Chang-You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lture of the Aged and Welfare Administration between America and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Jeju University* Vol. 21, Jeju, Korea, 1985. 12, pp. 219~242.

본 논문의 목적은 美國老人文化에 바탕을 둔 福祉模型과 우리 나라 文化에 바탕을 둔 福祉model과를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老人福祉model을 創出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노인 인구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文化에 내包된 가치관과 文化와 老人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다음, 끝으로 노인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있다. 가치관이라는 시각에서 미국인은 대체로 개인주의에, 한국인은 가족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점차로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는 만큼, 가족주의는 봉괴되어 갈 것이고, 노인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필자는 우리 나라 老人們의 심각한 ‘문화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文化’와 행정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1766. 金基準, “女性福祉에 關한 小考”(국문), 慶熙行政論集 제3집,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1985. 12, pp. 125~159.

Kim Ki-Jun, “A Study on the Women's Welfare”(in Korean), *Kyung Hee Public Adminis-*

tration Review Vol. 3,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Suwon, Korea, 1985. 12, pp. 125~159.

상기 논문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濫落女性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서울시 거주 濫落女性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윤락의 형태가 개인 단위로 변해가고 윤락여성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윤락제공처가 주택가로 침입하여 密娼化되어 가며 그 절대적 숫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自意에 의해 濫落化하는 여성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에 대한 규제와 저임금노동여성에 대한 보호, 기술輔道사업의 확장 등이 요구되어진다.

1767. 崔在錫, “新羅時代의 社會福祉”(국문), 민족문화연구 19, 고려대학교 民族文化研究所, 1986. 1, pp. 1~25.

Choi Chae-Sok, “Social Welfare in the Sill Period”(in Korean), *Korean Cultural Studies* Vol 19, The Korean Cultural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1986. 1, pp. 1~25.

古新羅時代와 統一신라시대에 있어서 社會福祉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즉 신라시대에 있어서의 社會福祉의 대상은 무엇이며 그러한 대상에 사용된 정책 내지 方法은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方法은 어떠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1768. 金尚均, “한국대학생의 복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지역 5개 대학을 중심으로”(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7권 제4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5. 12, pp. 87~113.

Kim Sang-Kyu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Welfare: A Study of Five Universities in Seoul,”(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7 No. 4,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 12, pp. 87~113.

이 연구는 사회정책학적 관심에서 다음세대의 주역이 될 대학생의 복지의식을 규명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차적으로는 그들의 상이한 복지의식을 결정짓는 몇 가지의 변수를 발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極右, 中道右, 中道左, 그리고 極左의 4분법에 의한 복지모형에 따라 (5개 대학 대학생에 대해) 설문을 작성했는데, 그 결과 1984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中道右에 가까운 中道左에 속한 복지의식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